

정직한 말은 온전한 삶의 힘

정어(正語)는 팔정도의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로 닦아진 바로 서고 고결한 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상(相)이다. 따라서 정어에서는 '진솔함'을 으뜸 덕목으로 삼는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대부분은 유쾌한 기분을 갖게 된다. 덕과 도덕이 배어있는 정어(말)는 그만큼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다. 또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아잔차 스님이 영국을 방문했을

책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법칙과 모든 세계를 바라보기 보다는 지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간파한 스님은 즉시 대답했다. "부인 당신은 집 마당에 암퇘지를 키우는데, 닭갈을 죽지 않고 닭똥만 주으려고 좇아 다니는 사람과 다름이 없소"

**열린마음에서 나온
바르고 고결한 말
신뢰 조화 사랑 발휘**

팔정도에서 배번 열린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열린 마음은 상투적인 삶의 궤적에서 서 있는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 삶과 함께 하고, 그것을 탐험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이다. 바로 삶의 법칙과 모든 세계를 주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편안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계(戒) 덕(德) 도덕성을 계발해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자제(自制)이며 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상징적으로는 사랑이며 봉사 그 자체이다. 아잔차 스님은 정어를 가르칠 때마다 바로 서고 고결한 마음에서 배어나온 사랑과 봉사에 대해 미소를 머금고 수시간 동안 즐겁게 이야기했다.

아잔차 스님은 "바로 서고 고결한 마음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길이든지 기초가 되며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진실한 말과 고결한 행동이 나오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했다.

사회의 기본 단위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술한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개별적이며 독립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음에서 스며나온 말(正語)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우리 친구, 우

리 사람 등의 관계는 이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또 이것들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독창적일 때 삶의 궤적에서 신뢰, 조화, 사랑이 생겨나고 큰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관계가 명쾌해지고 진실해지며 집착은 사라지고 관용(寬容)만이 있을 뿐이다. 마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불교학자 조셉 골드스타인은 어느 날 일정기간 타인을 지목하는 어떤 말도 없었다고 맹세했다. 그 기간이 경과하자 골드스타인은 자신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무슨 연유에서일까? 불교학 골드스타인도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일까?

먼저 삶의 순간 순간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때 선부른 판단은 피해야 한다. 행복과 조화의 순간의 원칙을 살피고 불행과 부조화의 순간을 구별하면 된다. 그리고 불행과 부조화의 순간 정어를 실천했는지 기억해 내고 그 당시 내면의 변화를 살펴볼 때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정어를 공부하며 우리가 자신, 타인,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계와 자신을 유념하고 있는가? 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어란 바로 '바로 서고 고결한 마음에서 배어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번역=오중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는 부분에 있는 세포 하나만으로도 한 인간을 충분히 재생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나무가지 하나를 땅에 심어 본래의 나무와 같은 것을 재생시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또한 신비스럽게도 손톱의 세포만이 손톱이 되고, 머리카락의 세포가 머리카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어느 부분의 세포도 정보 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어떤 세포를 가지고도 하나의 인간을 완벽하게 재생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후 검사를 하자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만 할 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세상에는 이것과 유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 유전자는 혼자서 작동하지는 않으며 몸안에 있는 유전자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기능한다. 전체적인 요인에 따라 ON과 OFF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바깥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정신적 자극이 유전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 ON과 OFF의 선택은 미리 정해져 있는 설계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밤 사이에 흰 머리가 생기는 수도 있고, 큰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이 기적적으로 생환했음을 알고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일도 있다. 어느 특정한 유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것은 쉬게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다 활발하게 조정한다. 이와 같이 많은 요소들이 자율적으로 작동해 가는 현상을 카오스 이론에서는 '자기조직화'라고 한다. 자기조직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가짐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지면사정으로 '무문관 탐방' 이번주 생략

**인간은 수십兆개의 세포로 구성
마음가짐, 유전자 자율적 작동에 영향**

라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유전자는 모두 일제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톱이 되는 유전자는 손톱을 만들때만 작동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ON', 또는 'OFF' 이자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2진법(0, 또는 1)의 구조이다. 이 사실을 두고 알기 쉬운 예로써 피아노를 생각해 보자. 피아노에는 많은 건반이 있으며 각 음정의 어느 부분의 소리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두드릴 때는 1(ON), 그렇지 않을 때

은 반드시 생리적인 조건만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유전자의 기능은 환경과 여러 자극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유전자가 갑자기 어떤 계기에서 잠에서 깨어 활동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말기의 어떤 암환자는 의사로부터 "이제 외출로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잡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환자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기로 각오하고 기왕에 죽을 바에야 평소 먹고 싶었던 떡이나 싹떡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6개월

정어②

때 일이다. 스님은 여러 불교단체를 순회하며 법회를 열었다.

어느날 저녁 법문을 마친 후 스님은 당당하게 보이는 한 한국인 부인으로 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다년간 불교심리학 아비달마 경전에 나온 80식 분류법에 따라 마음의 복잡한 사이버네틱스(인공두뇌학)를 연구했다.

"불교심리학 체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측면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연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말이지요." 영국인 부인이 자기 마음을 닦고 삶의

불교와 수학

53
유전자와 이진법

김용운

한 사람에게 수 십兆(兆) 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의 핵에는 유전자로 쓰여진 정보가 30억 개나 있다. 유전자는 DNA(데오지리포 핵산)라는 물질이다. 이 정보량을 백과사전 크기의 책으로 따진다면 약 천권가량이 된다. 우리는 이 유전자에 쓰여진 정보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 특성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알츠의 제왕으로 일컬어지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후손들 사이에는 우수한 음악가가 20여명이나 배출되었고, 17세기 스위스의 뱀누이 집안에서는 10명에 가까운 일류급 수학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유전자로 설명되고 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이란 노력하거나 말거나 처음부터 되는 것과 안되는 일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인간은 대오를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과학과 불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로 몸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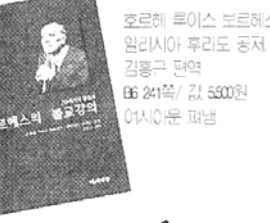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0
교리 · 입문편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술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책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단순히 서구 지식의 불교 이해 차원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갈 현대인 모두에게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불교가 왜 '내일'의 '내안'일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 주는 보르헤스어대로 21세기에 21세기를 온전히 잇닿아 살아갔는지도 모르겠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인간시대 후라도 공저
김홍구 번역
06 28146 / 값 5500원
이시어문 펴냄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 수령 내용**
- I. 보르헤스의 문학 세계와 불교
 - 보르헤스는 누구인가
 - 보르헤스와 불교
 -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
 - 재미있게 읽는 보르헤스
 - II. 불교 강의
 - 전설상의 붓다
 - 역사상의 붓다

이시어문은 '듣는 바, 만, 천의 어긋남도 없이 전파했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시어문 주소: 서울 서초구 전지동 110-33 전화: 77-0066(영원부), 77-0061(민정부), 77-0067(캐스)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하십시오!

“윤달이 든 해에 짓는 수의라 뜻깊습니다
부처님 섬기는 마음으로 지어 더욱 뜻깊습니다”

부도님의 환감, 진감이 가까워지면 윤달에 수의를 지어두는 것이 상례입니다. 수의를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은 윤달은 공양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모시는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세계가 극락인 것처럼 내일도 떠나실 어른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수의를 마련해 드리는 일입니다.

btn 문화사업단에서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부모님께 특별한
효도를 하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 (02)3270-3366 팩스: (02)3270-3498